

# 칠심역

최근 수정 시각: 2025-09-24 14:33:02

분류: 창전구(효빈)의 철도역 | 1989 년 개업한 철도역 | 효빈 도시철도 2 호선 | 나무위키 철도 프로젝트

- 개요
- 역 정보
- 역 주변 정보
  - 출구 정보
- 일평균 이용객
- 승강장
- 연계 교통
- 기타

## 1. 개요

효빈 도시철도 2호선 214번, 효빈광역시 창전구 칠심동 616 소재.

## 2. 역 정보

## 3. 역 주변 정보

### 3.1. 출구 정보

### 칠심역

②

외선순환

유류

← 1.02 km

2 호선

(214)

내선순환

시로

1.54 km →

### 역명 표기

2 호선

칠심

chilsim

七心/七心/チルシム

### 주소

효빈광역시 창전구 칠심동 616

### 관리역

중수관리역

### 운영 기관

2 호선

효빈교통공사

### 개업일

2 호선

1989 년 2 월 3 일

### 역사 구조

지하 3 층

### 승강장 구조

복선 섬식

칠심역 출구 정보

1	칠심베르디움아파트
2	창전소방서
3	오양초
4	칠심 3 동행정복지센터

## 4. 일평균 이용객

연도	②	비고
2020 년	21,039 명	
2021 년	20,997 명	
2022 년	22,000 명	
2023 년	23,278 명	
2024 년	23,232 명	

## 5. 승강장

↑ 유류		
	하	상
↓ 시로		
상	<a href="#">효빈 도시철도 2호선</a>	외선순환 시로·우전·신흥 방면
하		내선순환 중수·시청·효빈대학교·중앙로 방면

## 6. 연계 교통

구분	정류소명	노선 번호
순방향	칠심역	7, 16, 17, 59, 141, 154, 261, 271, 472, 491, 582, 591, 592, 612, 632, 672, 771, 793, 8888
역방향	칠심역(건너편)	07-1, 61, 71, 95, 411, 514, 621, 721, 742, 941, 852, 951, 952, 612, 632, 672, 771, 793, 8888R

.

## 7. 기타

### 7.1. 역명과 관련된 여담: 히로마치 나나미 성지순례지 '七心'

창전구 칠심동에 위치한 이 역은 2020년대 들어 일본의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 BanG Dream!의 밴드 Morfonica의 멤버 히로마치 나나미(広町七深) 팬들에게 성지로 떠올랐다.

- **연결 고리:** 역명인 \*\*칠심(七心)\*\*의 앞글자 \*\*칠(七)\*\*이 나나미의 이름(七深)과 일치하며, 나나미가 작중에서 타인의 마음(心)을 신경 쓰거나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평범해지려 노력하는 캐릭터성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 \*\*나나미의 마음(七心) 역\*\*으로 불리게 되었다.
- 팬들은 이 역에서 나나미의 말버릇인 \*\*"평범(普通 - 후츠)하고 싶어"\*\*를 테마로,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인증샷을 찍고 사라지는 '평범한 성지순례' 문화를 즐기고 있다.

### 7.2. 2023년 칠심역 상해 미수 및 참교육 사건

2023년, 고립주의자 A씨가 보몽역 사건에 이어 칠심역에서 성지순례를 하던 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다, 오히려 팬들에게 물리적으로 제압당해(참교육)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다.

- **사건 개요:** A씨는 역사 내에서 나나미 굿즈(베이스 기타 가방, 괴담 책 등)를 소지한 팬들에게 다가가 \*\*"숫자 7은 행정 구역명일 뿐이다! 오타쿠들은 꺼져라!"\*\*라고 고성을 지르며, 한 팬의 베이스 기타 케이스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시도했다.
- **숨겨진 실력자들의 반격:** 그러나 A씨가 간과한 점은 나나미의 팬들이 나나미처럼 \*\*"평범함을 연기하는 숨겨진 실력자(능력자)들"\*\*이었다는 것이다. A씨가 폭력을 행사하려던 순간, 주변에 있던 팬들은 순식간에 A씨를 포위하여 제압했다. 특히 공격을 받은 베이스 기타 소지자는 A씨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뒤, \*\*"나나미 짱은 평범함을 원하지만, 폭력 앞에서는 평범할 수 없죠."\*\*라며 유도 기술인 **업어치기**로 A씨를 바닥에 꽃아버렸다. A씨는 자신이 '약해 보이는 오타쿠'라고 무시했던 시민들에게 **대차게 당한 뒤**, 출동한 역무원과 경찰에게 인계되었다.

- **성우 니시오 유카의 반응:** 이 사건은 일본까지 전해져 히로마치 나나미의 성우 니시오 유카가 본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 'Omochi Mountain' 라이브 방송 도중 언급하며 화제가 되었다.

니시오 유카: "에? 효빈시의 \*\*'칠심(七心)역'\*\*에서 나나미 팬들을 때리려던 사람이 있었다고요? 흠... \*\*'7'\*\*이라는 숫자가 싫어서? (황당하다는 표정으로) 그거 전혀 '평범(Normal)'하지 않네요~ 나나미라면 \*\*'아, 저 사람은 평범해지는 법을 모르는구나, 불쌍해'\*\*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. 역시 나나미의 팬들은 숨겨진 능력자들이라니까요. (웃음)"

- **부시로드의 공식 협력:** 밴드림 IP 사인 부시로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효빈교통공사와 협력하여, 칠심역에서 \*\*'제 1 회 칠심역 보통왕(普通王) 찾기 대전'\*\*을 개최했다. 나나미의 캐릭터성인 '평범하게 섞이기'를 테마로 역내에 숨겨진 나나미 패널을 찾거나 가장 평범하게 역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경품을 주는 이 행사는, A 씨의 혐오 난동을 공식적인 문화 축제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.
- **효빈대 에브리타임 반응:** 사건 직후 효빈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\*\*"칠심역 A 씨, 나나미 팬한테 업어치기 당함 ㅋㅋㅋ"\*\*라는 글이 올라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. 학생들은 "나나미 팬들은 \*\*'재능을 숨긴 평범함'\*\*이 컨셉인데 그것도 모르고 덤비다 털렸다", "A 씨는 혐오를 하려다 효빈시를 밴드림의 성지로 만들어버렸다", \*\*"업어치기 당한 시점에서 A 씨의 피지컬은 '평범 이하' 인증"\*\*\*\*이라며 조롱했다.
- **A 씨의 짜질한 반박:** 물리적 패배와 성우의 조롱, 공식 이벤트 개최로 멘탈이 무너진 A 씨는 에브리타임 댓글로 \*\*"나는 방심했을 뿐이다! 그 녀석들이 평범한 척하면서 흥기(악기)를 숨기고 있었던 게 비겁한 거다! 부시로드가 개입하다니 이건 외국 자본의 침공이다!"\*\*라는 짜질한 변명을 남겼으나, 학생들에게 "베이스는 흥기가 아니라 악기다", \*\*"본인이 먼저 찼으면서 말이 많다"\*\*\*\*며 추가로 팩트폭행을 당했다.